

모여서 내일을 열며

Prepare for Tomorrow

김정관 / (주)서일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Cheong-Kwan

전문경영과 조직의 운용, 대사회적 홍보와 브랜드에 대한 마인드가 도입되는 시대적 요구의 대응도 신진 건축사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타개책도 될 수 있다. 생각만으로 시작한 '모여서 하는 건축'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며 직원들과 경제적이거나 직업에 대한 열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한해를 돌아보니

면허를 따고 넷이 시작한 지는 삼년,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의 힘으로 한 지는 둘째 해를 맞는다.

개업하며 창간한 사보에 설립에 대한 의미를 새기며 쓴 시(詩)를 되새겨보면 너무 겁없이 시작하고, 그 변(辨)을 너무 쉽게 함부로 토했다고 느껴진다. 그만큼 힘든 한 해였기 때문이다.

각자 사무실을 낸다면 작게 시작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부산의 현실이 거의 소규모임을 볼 때 선후배들이 모여 조직을 갖추어 출발한다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작년 시월 큰 꿈을 안고 출범하였다.

개업식에는 수백명의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을 보며 그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구나 생각하며 서로가 결의를 더욱 다졌었다. 총원 25명으로 시작했으니 약관의 우리 형편으로 볼 때 대단한 용기였다.

그러나 작년 한해는 너무 큰 시련의 시간이었다. 정치기류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었는데다가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한 건축계에 대한 불신의 영향으로 설계에 대한 규제가 단순한 압력이 아닌 영역을 위협당하는 각종 제도의 신설로 간단한 도면이나 처리하라는 식으로 되어가는 것이니 생존권의 문제로 직결되는 상황이 우리에게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30여명이나 되는 조직으로 출발했으니 시기를 잘못 택한 것이다.

그동안 설계업계는 작품을 하는 소규모 아뜨리에 형태가 대부분이다 보니 여러 점에서 사회적인 대응에 약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러한 문제를 몇명이라도 모여서 일을 영역 별로 나누어 조직이 가지는 강점을 우리의 장점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는데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었으니 그에 따른 후유증은 생각보다 극복해 나가기에 힘에 부쳤다.

건축사 면허를 몇년의 기간 동안 몇천명을 주겠다고 하니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분위기와 감리단의 신설과 감리업무의 영역 확대로 설계인력이 대거 이동하면서 인력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전체적으로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에 대한 처우조건이 사무소 별로 너무 큰 차이로 벌어져 신설된 우리의 입장은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게 되어가고 있다.

수주의 주라인을 설계경기, 설계입찰, 건설회사에서 의뢰하는 기획설계 등으로 나누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접근해 보았다. 3년동안 세차례의 설계경기에 응모하여 한번의 당선과 두번의 2등으로 성적은 좋았지만 2등은 승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분을 삭혀야 했다. 물론 설계경기란 모든 면에서 공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후유증은 2등이기에 상당히 큰 것이었다. 이 또한 설립 초기인 것과 사회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점에서 어떤 한계를 느껴야 했다.

설계입찰은 이러한 면에서 비교적 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해진 설계비가 열악하므로 이 또한 작업의 열의가 반감될 수 밖에 없으나 초기의 의욕으로 너무 많은 작업량은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경제적인 설계,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작업만 해야 할 것을 의욕대로 하다보니 살림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

건설회사에서 의뢰하는 기획설계는 건수는 한도 없지만 직접 실시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의뢰가 들어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다 보니 맨파워의 절반 가량이 투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래저래 경영은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연륜이 짧은 우리가 겪어야 할 시행착오가 얼마나 뼈아픈가를 느껴야 했다. 작품보다 앞서는 생

존의 문제는 우리보다 직원들의 현실에서 더욱 고통스러웠다. 살림살이는 우리의 몫이므로 나누기엔 한계가 있었다.

반성과 기쁨

젊음이란 무모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시작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었지만 또 이들 네명이 얼마나 오래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려 했었다고 한다. 같이 한 지 3년, 우리 힘으로 한해를 넘기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어린 손으로 등을 두들겨주는 고마움을 준다.

월초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돌아서면 다음달 걱정이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다들 바가 없지만, 살림을 맡고 있는 소장을 생각하면 늘어지는 설계일정은 더욱 일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속사정은 애가 타지만 꾸역꾸역 지나는 시간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남보기에도 좋아 보였던 지 우리와 비슷하게 조직적인 사무소로 출발하는 곳이 한두 팀 늘어나게 되었다. 물론 그 분들도 찾아와 먼저 시작한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여 이제는 외롭지않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이제는 정기모임도 기획하고 있다.

직원의 이동도 잦았다. 원활하지 못한 살림과 의욕만 앞서 무리한 업무량은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모양이었다. 한명씩 그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나면 우리의 한계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양 처진 어깨가 더욱 내려갔다.

일에 대한 의욕보다는 처우에 관심을 표하며 그만 둔 직원들, 그들의 입장에서 조직의 불확실한 미래에 시간을 투자할 만한 무엇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지만 같이 노력하면 그만큼 안정된 조직이 구축될 것을 함께 할 수 없음이 야속했다.

그런 와중에도 끈뚱하게 남아서 새해를 맞는 직원들을 보면 동생들처럼 정겨웁기까지 하다. 이들과 따뜻하게 술 한잔 제대로 나눌 시간이 없이 시간이 흘렀으니 마음으로 정을 줄 수 밖에.

기획설계, 맡겨주어 고맙지만 모험만들고 도면그리는 정성이 사업성이 없다는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무정함이 한두번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몇십건이 이르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선에 이르게 된다. 몇억에 이르는 설계비의 유혹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직원들의 마음과 우리와 유사한 조직의 출현, 믿고 기획이라도 맡기려는 건축주의 신뢰, 토닥거리면서도 도타워지는 소장들간의 정, 이보다 더한 것을 지금 바란다면 과욕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설계환경으로서의 새해

우리가 선택한 조직화된 사무소로서의 출발, 살아 남기 위한 선택이다. 설계사무소도 경영의 마인드가 없이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소화와 사회적 위치를 점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회적 위상의 확보가 수주와 직결되는 현실을 볼 때

조직으로 대응하는 여건은 최소한 날으로 있는 우리 자신보다 더 나은 대사회적 발언과도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니겠는가? 그래서 아직 어린 우리는 이렇게 뭉쳐야 커질 수 있다고 믿는다.

설계실무를 시작하는 이들도 더 이상 배고픈 생활을 원치 않는것 같다. 이제 냉정해져야 하며 설계가 예술이기에 배고픔을 이기고 추구해야 한다는 얘기는 좀 접어두어야 할 것이다. 경영의 합리화와 맨파워의 구축은 신속하고 고도화되어 가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건축이 더 이상 영원히 남는 예술품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충실하게 담아내야 하는 그릇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건물의 수명으로 얘기할 수 있다. 구조적 수명과 상관없이 기능을 담을 수 없게 되면 여지없이 헐어내거나 개수되어 버리는 것이다.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성에 맞추어 다시 짓게 된다.

건축과 건축가와 설계사무소에 대한 정의도 새로 내려야 할 것이다.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건축과 관련한 우리의 주변은 아직 그대로 인 것 같다. 건축사 한사람이 경영과 일을 모두 수행하는 체제와 함께 조직화된 집단으로의 체제가 정착되는 것도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경영과 조직의 운용, 대사회적 홍보와 브랜드에 대한 마인드가 도입되는 시대적 요구의 대응도 신진 건축사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타개책도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생각만으로 시작한 '모여서 하는 건축',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며 직원들과 경제적이나 작업에 대한 열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네명.

왜 모였나?

건축을 위해?

또 다른 무엇이 있나?

건축.

이게 뭐가.

누구든 가는 제길

우리도 가는 우리 길

일터

넓게 펼쳤다.

높은 탑을 쌓으려면

기초 자리는 넓을 수 밖에

넋이 모여

건축을 위해 일터를 일군다.

도움도 받고 도와도 주고

우리 스스로 어루만지며

인생을 펼친다

서일은 옥도는 아니지만

거름을 붓고 땀을 쏟아

뿌리가 깊은 나무를 심는다

한 그루부터 큰 나무로 키운다

(서일 설립 자축시)